韓國人口學會誌, 第十一卷 第一號 (1988)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of Korea, Vol. 11, No. 1 (1988)

《特別寄稿》

한 人口學徒의 回顧

金 鐸 一
(翰林大學)

〈目 次〉

Ⅰ. 머 리 글
Ⅱ. 保健社會部와의 因緣과 醫務課 時節
Ⅲ. 5.16과 家族計劃
Ⅳ. 母子保健課 創設
Ⅴ. 家族計劃事業 10個年 計劃
Ⅵ. 事業推進 意慾과 壓力
Ⅶ. 地域保健事業과 看護補助員制度
Ⅷ. 母子保健法의 制定
Ⅸ. 國立과 私立의 두 研究機關
Ⅹ. 政府事業과 民間團體
Ⅺ. 國際機構에서의 公務員 활약
Ⅻ. 나의 새 出發

Ⅰ. 머 리 글

나는 1928年 서울 新村에서 태어났다. 日帝植民統治下에서 平凡하고 善良한 少年으로 자라난 나는 8.15 解放后의 어수선했던 時節에 大學豫科를 거쳐 医科大學生이 되었는데 6.25 動乱으로 學業이 一時 中斷되었다가 避難中에 釜山에서 戰時 聯合大學을 卒業하여 醫師가 되었다. 軍醫官으로서 空軍에 服務하던 時節부터 臨床醫學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國家公務員, 國際機構公務員, 그리고 大學의 教職者로 이어져 온 나의 生活속에서 保健行政家로서의 自信感은 가져본 일은 있어도 醫師로서의 自信感은 끝내 가져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小醫는 사람을 고치고 大醫는 나라를 고친다는데"하고 全國民을 위한 保健行政의 一翼을 담당했던 時節의 自負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이제 지난 날을 回顧하면서 記憶나는 일들을 적어놓고 싶은 心情을 갖게된 나이에 이르렀다. 막상 글을 적어 보려하니 남다르게 살아온 것이 별로 없지만 國家家族計劃事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었다는 것은 뚜렷하다. 그것은 公務員으로서 業務上의 關聯이었기 때문에 獨自的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 發展 過程의 곳곳에서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그중에서 과히 흥하지 않은 것들만 추려서 적어 놓기로 하였다. 여기 저기에 나의 偏見과 自慢이 도사리고 있지만 읽는분들의 寬容을 바랄 뿐이다.

Ⅱ. 保健社會部와의 因緣과 醫務課 時節

1959年 봄, 나는 保健社會部 醫政局 醫務課에서 保健公務員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家族計劃事業과 더불어 내가 걸어온 길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7年間의 軍服務를 마치려는 1959年의 봄에 나는 一生에 몇번 없는 重要한 決心을 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母校에 돌아가서 臨床醫師 修練을 처음부터 시작하느냐, 保健社會部에 公務員으로 就業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臨床이냐 行政이냐 両者擇一의 時点에서 망서림 끝에 后者를 擇했던 일이며, 其后 30年이 지난 오늘날 그 選擇은 賢明하였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韓國 家族計劃事業과 깊은 因緣을 맺게 하였고 保健公務員으로서, 國際機構公務員으로서, 教職者로서의 보람있는 半生을 갖게 해준 것이다. 내가 保健社會部에 關心을 갖게된 데에는 몇가지 有意한 要素들이 있다. 軍에 있는 동안 予防醫學分野인 航空醫學을 공부하고 空中勤務者의 健康管理와 醫務行政에 從事해오던 차

에 空軍結核患者를 保健社會部에 移管하는 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保健社會部의 機能과 役割에 接하게 되었다. 또한 그 當時 保健社會部 傘下機關인 大韓住宅營團의 理事長으로 계시던 아버님이 계셨다는 것이 나를 當時의 保健社會部長官인 孫昌煥博士에게 손쉽게 紹介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이미 妻子 네 食口를 거느린 家長으로서 7年 后輩들사이에 끼어서 無報酬나 다름없는 臨床修練生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精神的, 經濟的 負擔을 안겨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兩者擇一의 岐路에서 臨床專門醫師인 朴贊武 先生을 찾았다. 朴先生은 나로 하여금 行政을 擇하게 하였다. 「당신은 行政에 資質이 있는 것 같으니 그 方面으로 계속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明快하게 말씀하여 주신 朴贊武 先生의 忠告가 지금도 생생하다. 朴先生은 나의 中學, 大學의 先輩이시고 空軍의 一線이였던 江陵 第10戰鬪飛行團에서, 그리고 空軍醫務監室에서 같이 勤務하다가 나보다 앞서서 除隊하고 國立中央醫療院 創設要員이 되신 産婦人科 專門醫였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의 忠告를 決定的으로 받아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后 그 분과 나는 特히 家族計劃分野에서깊은 因緣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분의 忠告를 所重하게 여기고 있으며, 行政의 길을 擇했던 것을 後悔하지 않는다.

保健社會部 醫政局 醫務課에서 公務員生活을 시작한 내가 맡은 일은 無醫面 對策과 健康保險開發이었다. 醫療均霑이란 重大한 國家施政目標의 具顯을 위한 主要施策事業을 主管하게 된 것은 여간 多幸한 일이 아니었다. 그 때 冊床을 맞대고 일했던 두 분이 있는데 孫昌達先生과 鄭慶均先生이다. 孫先生은 그 후 社會保障審議委員會 重鎭으로서 우리나라 社會保障制度 發展의 礎石이 되는 많은 研究活動을 하다가 數年前에 돌아가셨다. 鄭先生은 나와 같이 家族計劃分野에서 계속 活動하다가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敎授로서, 特히 醫療社會學分野 研究에 남다른 情熱을 쏟아오고 계시다. 나는 公務員 初年生으로서 醫務課 時節에 많은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特히 公醫予當 予算을 目間流用해서 公醫診療所를 新築하는 일에 參與함으로써 公務를 위해서 公務員이 公務員에게 金品 等을 提供하는 必要惡(?)을 배우기도 한 것이다. 그 때 無醫地域 100余個所에 新築한 公醫診療所는 5.16 后 鄭熙燮長官이 發動한 醫師動員令에 따라서 軍服務 대신 無醫地域에 配置된 動員醫師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近來에 農漁村地域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에 根據하여 實施되고 있는 公衆保健醫制度나 保健診療員制度도 60年代의 無醫面對策事業으로 부터 發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制度들도 역시 公醫診療所와 類似한 診療와 住居를 兼할 수 있는 施設의 確保가 그 成果를 期約하는 關鍵이 되고 있는 것을 볼때에 하기 힘든 予算目間流用 作業에 參與했던 일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反面 醫務課 時節에 힛수고로 끝났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醫師의 生命表를 만들어 보려던 일이었다. 나의 所管은 아니었지만 醫務課의 基本業務는 醫療人의 國家試驗을 主管하고 免許登錄을 받아 免許証을 發給하고 醫籍簿를 管理하는 일이었다.

免許台帳은 醫務課의 重要保存文書로서 個個醫療人의 生年月日, 免許資格 取得年月日, 免許年月日, 死亡年月日 等이 記錄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軍에서의 予編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予防醫學敎室에서 博士學位科程을 하기로 登錄을 하였기 때문에 醫務課에 勤務하고 있는 機會에 醫師免許台帳 資料를 利用해서 醫師의 活動期間을 生命表化 할 수 있다면 私的으로는 學位論文감이 될 수도 있고 公的으로는 醫師人力計劃의 資料로서도 有益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課長이나 擔當官의 協助로 醫籍簿를 뒤지기 시작했다. 健康保險 開發事業 囑託으로 있는 鄭慶均先生이 醫籍簿에서 情報를 빼내는 基礎資料 作成에 協力해 주었다. 無味하고 지루한 일을 몇 달인가 持續한 后 中間評價를 하였던 바 그 結果는 너무나도 悲觀的이었다. 醫師가 死亡하면 그 事實을 申告하기로 되어있는 醫療法上의 申告義務 履行이 잘 안되고 있던 것이다. 100歲가 넘는 醫師가 수두룩하여 도저히 그 資料는 쓸 수가 없는 것이 判明된것이다. 貴中한 公務時間을 割當해서 일해온 보람없이 나의 꿈과 鄭慶均先生의 努力은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

지만 醫籍管理의 向上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后 醫療人의 就業現況 把握에 保健社會部와 同業者團體들은 많은 努力을 하여왔고 特히 定期申告制度도 導入했던 일이 있지만 지금은 어느 水準까지 發展되었는지 궁금하다. 醫療人力管理의 重要性이 高潮되고 있는 요즈음 保健企劃 情報管理體系의 構築과 더불어 醫療人力管理도 電算化되고 人口動態 申告業務 處理와 連繫되어 가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다.

Ⅲ. 5.16과 家族計劃

5.16軍事革命이 일어난 해의 가을 11月初에 나는 醫務課를 떠나서 地方醫政課長職을 맡았다. 軍에서의 行政經歷에서 얻은 "브리핑" 솜씨가 내가 革命政府로부터 昇進發令을 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5.16은 나의 保健公務員 生活을 이어가는 마당에 큰 活力素를 보태준 셈이다. 내가 地方醫政課를 맡은 것은 나의 生涯에 重大한 契機点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尹錫宇先生이 防疫局 保健課長으로서 맡으셨던 家族計劃 業務를 初代 地方醫政課長으로 오시면서 갖고 오셨고, 바로 醫政局長으로 昇進하시면서 地方醫政課를 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1961年 11月 13日 國家再建最高會議 第69次 常任委員會가 家族計劃을 國家政策事業으로 採擇하기로 議決하였고, 그 때 나는 國家 家族計劃事業을 主管하는 部署의 責任을 맡게 되었으니 참으로 運이 좋았다고 할 수 있으며, 家族計劃事業 4半世紀와 나의 公職生活은 5.16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것이다. 梁在謨 先生도 指摘하였듯이 (韓國人口學會誌 86年7月號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綜合分析) 儒敎的, 傳統的 家族觀이 뿌리 깊은 社會與件에서 避姙藥劑器具의 輸入과 國內生産을 禁止하는 等 産兒制限을 反對하는 國家施策을 一時에 180度 轉換하고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一環으로 家族計劃事業을 國家의 責任下에 施行하도록 한 것은 軍事革命政府의 一大 勇斷이었다. 革命的 社會改革의 政治風土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政策의 劇的 轉換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5.16은 이 한가지만 가지고서도 우리나라 우리民族의 發展을 앞당기는데에 중대한 契機를 가져온 歷史的 事件으로 記憶되어야 할 것이다.

Ⅳ. 母子保健課 創設

1年間의 公衆保健 碩士課程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1963年 4月末이었고 약 1個月을 待期하다가 鄭熙燮長官으로 부터 下命받은 것이 家族計劃事業을 專擔할 部署를 創設하라는 것이었다. 政府職制를 만들 때 까지 우선 保健社會部 內規에 의해서 母子保健班을 發足시킨 것이 그해 6月初였고 張慶植(現 醫療保險管理公團理事長), 李秀永, 沈永鐸 제씨들(두분 모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幹部로 있음)과 더불어 乙支路入口 保健社會部 旧廳舍 別館 2層 衛生課 事務室 一部를 빌어 業務를 開始하였으며, 半年后인 그 해 12月 17日 第3共和國 誕生과 더불어 母子保健課가 되었다. 나는 母子保健課 職制案에 家族計劃係, 母子保健係 外에 人口動態係를 包含시켜 推進하였다. 人口統計의 基礎가 있어야 人口成長抑制政策下의 家族計劃事業을 計劃하고 評價하는 것이 容易하고 人口動態統計와 더불어 保健統計가 發展되어야 保健事業의 計劃과 評價가 正常化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人口動態統計事務는 保健社會部가 主管하고 人口政策 遂行의 核心部署가 될 母子保健課에서 일을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때 부터 나는 日本의 厚生省傘下 國立人口問題研究所와 같은 機關이 保健社會部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나의 이와 같은 생각은 保健社會部內의 理解와 同調조차 얻어내지 못하고 人口動態係 設置案은 流産되고 말았다. 이 때 부터 나는 企劃院 調査統計局 人口統計課에 몸 담고 계시던 高甲錫先生, 崔仁鉉先生 등과 交流를 시작했었다고 記憶한다.

母子保健課는 1970年代 后半에 母子保健管理官室로 昇格되었다가 지금은 家族保健課로 다시 縮小되었지만, 保健社會部內에서 가장 活氣차고 보람있는 일을 하는 部署로서 그 脈絡을 이어왔고, 予算을 많이 取扱하기 때문에 特히 行

政事務官이 오고 싶어하는 部署로 有名하였다.

家族計劃局을 設置하라는 外國專門家들의 對政府建議에도 不拘하고 課水準으로 定하고 母子保健課로 命名한 것은 尹錫宇先生등 公衆保健事業의 先驅者들의 助言에 의한 鄭熙燮長官의 賢明한 判斷이었다고 믿어진다. 말이 母子保健課지 業務內容과 豫算規模로 보아 家族計劃課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國會등에서 종종 論難이 있어왔지만 保健社會部內에서는 家族計劃은 母子保健을 위한 것이고 언젠가는 家族計劃이 母子保健事業의 一環으로 統合될 것을 期待하였던 것이다.

母子保健 豫算에 比해 家族計劃 豫算이 너무나 膨大해진 것을 比喩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母子保健課 創設 后 25年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家族計劃事業費는 母子保健事業費에 對해서 7對1의 優位를 차지하고 있으니 아직도 國家가 家族計劃事業에 投資할 일들이 많이 있는가 보다.

V. 家族計劃事業 10個年 計劃

母子保健班 時代에 記憶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家族計劃 10個年 計劃을 作成한 것이고 또 하나는 母子保健法을 草案한 것이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作成된 第1次 5個年 計劃에는 人口增加率을 1961年의 2.9% 水準에서 1966年까지 2.7%로 한다고 反映되어 있었으나, 企劃院 實務陣에서는 人口增加 抑制目標를 1966年末에 2.5%로 하는 案과 2.0%로 하는 案이 檢討되고 있었다. 母子保健班의 重大課業은 實踐可能한 事業目標를 세워 達成可能한 人口增加率 抑制目標를 定立하는 것이었다. 避姙方法別 出生抑制率을 適用하고 年間 避姙法別 普及率을 計劃하고 死亡率의 變化를 推定하여 事業規模와 人口增加率을 年度別로 計算해내는데 모든 知慧를 쏟아 넣었다. 張慶植先生은 每日 手動式 計算機를 돌리는데 지쳐 버렸다. 이 案 저 案을 調整해서 近似한 案을 찾아내는 일이 高級統計技法의 適用없이 이루어졌으니 그 苦痛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張慶植先生은 드디어 서울市로 轉出해 가시고 李昶燮 事務官이 母子保健班에 赴任한 것이 9月 이었고 그가 母子保健課 初代 事務官이 된 것이다. 그러던 중 1963年 9月 10日字로 內閣首班 指示覺書 第18號가 示達되었는데 政府各部處에 對해서 人口抑制를 위한 任務賦與가 되고 그 해 10月 10日까지 必要한 措置方案을 提出하라는 內容이었다. 母子保健班에서는 몇 달동안 作業을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國家家族計劃事業 10個年 計劃案」을 成案하여 提出하였다. 이 計劃에는 人口增加率을 1966年까지 2.9%에서 2.5%로, 그리고 第2次 5個年 計劃期間末인 1971年까지 2.0%로 減縮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였다. 그 當時 企劃院 3次 產業局에 人口擔當部署가 있었는데 課長級에 李炳武氏가, 係長級에 姜仁熙氏가 있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發展過程에서 關係部處의 企劃調整을 擔當하였었고 內閣首班 指示覺書도 여기서 主管하였다. 나는 家族計劃 10個年計劃을 들고 企劃院을 드나들었다. 結局 1964年 2月에 確定된 第1次 5個年計劃 修正案에 우리가 提出한 家族計劃 10個年計劃案이 反映되어 1966年末까지 人口增加率을 2.5%로 하기로 決定되고 1964年度 부터 家族計劃事業費는 一般予算에서 分離하여 별 建設費와 마찬가지로 投資予算에서 支出하기로 된 것이다. 人口事業 初期에 企劃院에서 애쓰시던 李炳武씨는 그 后 國立家族計劃研究所 創設과 더불어 評價部長으로 나와 같이 일하다가 美國으로 移民을 가셨는데 내가 世界銀行에 있을 때 까지는 接觸을 유지하였으나 이제는 消息이 끊겼다. 姜仁熙씨는 公務員으로서 自己發展을 繼續하여 農水產部次官으로까지 進出하였는데, 年前 버마 "아웅산" 慘死事件의 犧牲者가 되고 말았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當然한 일이지만 世上을 일찍이 떠나버린 분들을 생각하면 人生無常을 더욱 깨닫게 된다.

如何튼 家族計劃 10個年計劃은 大過없이 達成되었고 이를 基盤으로 하여 第5次 5個年計劃末인 1986年까지 人口增加率을 1%까지 減縮시킨다는 目標는 거의 成就되었다. 나는 1971年 가을 美國에 있는 世界銀行으로 떠났지만 나의 靑春을 바친 家族計劃事業이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이바지하고 國民生活 向上에 寄與한 바가 큰 것

으로 國內外에서 評價되고 있음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람이며, 나 스스로의 自負이기도 하다.

Ⅵ. 事業推進 意慾과 壓力

世界的으로 經驗이 없다싶이한 國家家族計劃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官과 民, 그리고 學界가 國家目標 達成을 위하여 協同할 수 있었다는 것이 成功의 關鍵이었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러한 3者의 協力體制의 窓口役割을 한 것이 大韓家族計劃協會이고 外援에 依存한 각종 示範硏究事業도 協會가 學界와의 中間役割을 하였기 때문에 政府側의 主務者인 나는 자연히 協會의 각종 委員會를 諮問窓口로 活用하였던 것이다. 1964年度 予算案을 內部에서 審議하던 때의 일이다. 그 當時 서울大學校 醫大産婦人科 敎授로 계시던 故 申漢秀先生 指導下에 「리페스(Lippes) 루우프」를 使用한 子宮內裝置 臨床硏究가 進行中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普及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事前結論이 나고 있었기에 '64年度 國家家族計劃에 子宮內裝置事業을 導入키로 하고 2萬件의 施術事業費를 反映하여 올렸다. 나의 予算案 브리핑을 받고 계시던 鄭熙燮長官께서는 子宮內裝置 目標를 30萬件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示範事業도 完結되지 않고 있으며, 첫 해부터 그렇게 높은 目標를 세울 수는 없다는 見解를 말씀드렸더니 長官께서는 大怒하시면서 「당신은 왜 長官말보다는 家族計劃協會의 梁在謨博士 말을 더 잘 듣는가」하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것은 徐徐히 받아드리는 것이 옳다고 判斷하여 나의 所信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남의 말만 듣는다」라고 꾸중을 들은 나는 自負心을 내세워서였던지 퍽 섭섭하였는데 그 때 同席하였던 企劃調整室 韓相泰 保健企劃官(지금은 世界保健機構 西太平洋地域 事務局 次席으로 계심)이 長官室 밖으로 나와서 長官말씀을 거역하였다고 나를 攻擊하였다. 나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몇일인가 出勤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公務員으로 平生을 바치신 家親께서 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나를 說得하셨다. 나는 約 1週日 后에 出勤해서 予算書를 뜯어 고쳤다. 子宮內裝置 目標를 7萬件으로 해서 鄭長官님의 決裁를 받아 냈다. 1964年度 事業實績은 10萬件이 넘었으니, 그 때의 長官님의 事業推進 意慾과 判斷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물론 施術醫 訓練을 담당해주신 協會나 婦人들을 啓蒙한 一線 家族計劃要員들의 勞苦가 이 成就를 뒷받침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의 가장 큰 問題의 하나는 「리페스 루우프」를 願하는 量만큼 確保 供給하는 일이었다. 美國人口協會에서는 目標 2萬件을 위한 數量만 供給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緊急히 國內生産을 하는 일 外에는 方法이 없었다. 「리페스 루우프」는 美國內에서도 開發初期에 있었고 特許品이어서 美國人口協會만이 開發途上國을 위하여 一括購賣하여 供給하고 있었던 것이다. 多幸히도 나는 「리페스 루우프」의 規格을 紹介하는 文獻을 入手할 수 있었고 大學同窓 姜信浩博士가 있는 東亞製藥의 協助를 받아 國內生産에 着手했다. 「루우프」는 衛生用具이기 때문에 製藥會社의 窓口가 必要했고 프라스틱 工業에 依存해야 했다. 1960年初의 우리나라 프라스틱 工業은 他分野에 못지않게 未洽한 狀態였다. 梧柳洞所在 國立少年職業訓練所에 있던 프라스틱 射出機가 活用되고 文獻에 따라 「몰드」(金型)가 鑄物로 만들어지고 永登浦에 있는 프라스틱 工場에서 포리에치렌 粉末과 照影劑인 유산바륨이 80對20의 比率로 混合되었고, 낚시줄로 使用되는 나이론실이 使用되었다. 포리에치렌 粉末과 유산바륨 粉末을 混合하는 데에 가장 큰 問題가 있었으나 迂余曲折 끝에 「루우프」 生産은 可能해졌다. 우리나라가 特許權에 關한 國際協約에 加入이 되어 있건 안되어 있건 國家事業을 위하여 全量을 國家에서 購入했기 때문에 特許權에 관한 말썽은 없었다. 한편 루우프挿入器도 루우프 20개에 하나의 比率로 生産하였는데 挿入器 原料인 「태프론」은 求할 수가 있었으나 워낙 뒤늦게 시작한데다가 試作에 時間을 消費하느라고 1964年 1月 中旬에야 納品이 되었다. 하는 수없이 書類는 年末以前에 納品된 것처럼 꾸며서 提出했던 것이 생각난다. 國庫執行의 原則에 어긋났지만 周囲에서 諒解해 주었던 것으로 記憶이 난다. 이리하여 우

리나라 歷史上 子宮內裝置 事業初年度에 10萬件을 突破하는 記錄을 세우게 된 것이다.

두번째의 子宮內裝置 施術事業 目標波動은 1966年度 予算審議때다. 1965年度에는 20萬件 目標에 22萬件 以上을 達成하였고, 1966年度 予算에는 30萬件을 年間目標로 策定했던 것이다. 그런데 UNICEF 東南亞地域 責任者로 있다가 美國人口協會 東南亞地域 代表로 轉任한「샘 키니」영감이 1965年 여름 來韓하여 經濟企劃院 故金鶴烈長官을 礼訪하게 되었는데,「키니」영감은 루우프와 挿入器 見本을 갖고 가서 그 優秀性을 金長官에게 說明했다.

「키니」영감의 說明에 魅惑당한 金長官은 당장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電話를 걸어 來年度 루우프 施術目標를 100萬件으로 늘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家族計劃 事業費中의 他避姙法 事業費를 몽땅 줄여서 말이다. 事業主務者인 나는 큰 일이 난 것이다. 이리 저리 뛰고해서 當初目標보다 10萬件을 늘려 40萬件으로 하는데 겨우 合意를 보았고, 國會에 提出된 予算案은 그렇게 修正 通過되었다.

1966年度의 實績은 39萬件을 突破하였으므로「하면 된다」는 熱氣가 여기서도 勝利를 한 셈이지만 一線要員들의 苦衷이야 오죽하였으랴. 그后 年間 子宮內裝置 目標는 30萬件 水準으로 定着되었다.

Ⅶ. 地域保健事業과 看護補助員 制度

家族計劃事業을 保健事業의 一環으로 推進한다는 것은 爲政者의 哲學的, 政治的 理念에 立却한 것이었지만 保健事業 自體의 基盤이 虛弱했기 때문에 實地로는 家族計劃事業을 通해서 地域保健事業의 뿌리가 내려지고 家族計劃事業의 一環으로 保健事業을 推進했었다고 逆說할 수도 있는 것이다. 市·郡·區 保健所에 看護員 免許所持者인 家族計劃 指導員을 配置하고 邑面單位에 無免許者도 包含한 家族計劃 啓蒙員을 配置하여 家族計劃 事業費에서 그들의 人件費를 補助한 것이다. 特히 1,473個 邑·面에 家族計劃 啓蒙員이란 이름으로 保健要員을 配置한 1965年은 우리나라 保健史上 特記되어야 할 해라고 생각한다. 그 后 邑·面單位에 母子保健要員과 結核要員이 追加 配置되었고, 最近에 統合保健要員으로 發展하게 된 契機가 마련된 것이 1965年이기 때문이다. 한 해 앞서 1964年에는 全國 5萬余里洞에 可姙女性으로 母子保健 學習班을 構成하여 每月 모임때마다 100원 씩을 補助한 것은 地域社會 保健問題를 위해서 地域住民의 參與를 助長하게 한 一大轉機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勿論 이보다 한 해 앞서서 再建國民運動本部가 自然部落 單位로 婦女敎室을 組織하여 家族計劃 座談會를 갖게 한 것이 母子保健 學習班을 쉽게 構成할 수 있는 밑천이 되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 后 母子保健 學習班은 大韓家族計劃協會가 主導하는「家族計劃 어머니會」로 發展하였고, 나아가서는「마을 健康事業」의 母體로까지 育成되었으니, 家族計劃事業이 地域保健事業 發展에 絶對的인 寄與를 한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1960年代에는 더우기 看護員 또는 助産員 免許所持者를 農村地域 保健要員으로 任用하기는 퍽 어려웠다. 이들에 대한 待遇가 좋지 않았던데다 都市病院에 일자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保健事業을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訓練된 保健要員을 一線에 配置하는 것이 先決이라 생각하신 鄭熙燮長官께서 次善策으로 看護補助員 制度를 導入하기로 決心하신 것이 1967年이었고, 그것은 지극히 賢明한 일이었다. 世界保健機構에서도 中學卒業者에게 18個月의 訓練課程을 適用하는 것을 正常的인 것으로 勸告했지만 鄭長官께서는 우선 9個月짜리로 시작하기로 定하고 保健要員 充員이 一定水準에 到達한 后에 訓練期間 延長問題는 再考하기로 腹案을 잡으셨던것 같다. 그 后 20年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看護補助員 登錄者數는 11萬名에 육박하고 있고 看護人力 構造에 莫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敎育訓練 課程의 質과 量에 대해서 深度있는 硏究가 없다시피 한 것은 매우 遺憾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3年制 專門大學課程과 4年制 大學課程으로 二元化 되어있는 現行 看護敎育課程이 안고 있는 葛藤과 矛盾을 해결하기 위해서 4年制로 單一化 하는 것을 最善의 方案으로 삼고 있는 看護指導層이 看護補助員課程의 修練資格이

中學校 卒業에서 高等學校 卒業으로 格上된 오늘날 3年制 看護教育課程과 9個月짜리 看護補助員課程을 吸收하여 2年制 看護員 專門大學課程으로 改編하는 方案도 誠意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個人的 所望이기도 하다. 60年代 后半의 우리나라 實情에 맞게 導入된 看護補助員制度가 西獨 등에서 低賃金 人力을 要求하던 70年代로 이어짐으로써 雨后竹筍格으로 乱立한 私設學院에서 大量 生産되어 海外로 送出되던 時期는 지나간 것이다. 向上된 우리나라의 保健醫療 供給水準에 알맞는 보다 合理的인 看護人力 構造가 再定立되었어야 할 80年代도 이미 가을어지고 있어서 때 늦은 感이 있지만 90年代를 向한 保健人力計劃과 더불어 看護補助員 制度의 方向을 보다 明確히 照明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967年 看護補助員 制度導入 當時 美國人口協會의 資金支援을 받아서 9個月 課程 修了者가 나오기 前에 一線에서 땀 흘려온 家族計劃啓蒙員에게 看護補助員 資格을 賦與하기 위한 特別訓練課程을 마련했던 나로서는 20余年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看護補助員 制度의 發展方向에 대해서 남다른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이 當然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Ⅷ. 母子保健法의 制定

1963年은 第3共和國의 出帆을 準備하는 해로서 社會各層이 분주했으며, 5.16 軍事革命政府는 社會改革 作業을 마무리하는 해였다. 社會改革의 意志는 諸法令의 整理에도 反映되어 國家再建最高會議가 갖고 있는 立法權의 終了를 앞두고 各 部處는 이 好機를 놓칠세라 앞을 다투어 法令의 改廢와 制定을 서두르는 때였다.

나는 母子保健所長으로 있으면서 國家 家族計劃事業을 計劃하는 過程에서 着眼한 것이 法的 뒷받침의 必要性이었고, 社會改革 意志에 充滿하고 있는 最高會議 議員과 그들의 立法權限이 尚存할 때에 家族計劃關係 立法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母子保健法을 서둘러 草案한 것은 이 機會에 人工姙娠中絶의 許容限界를 立法化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1962年 봄부터 1年동안 싱가폴大學에서 公衆保健 碩士課程을 마치는 동안 社會醫學的 觀点에서 事物을 判斷하는 訓練을 받으면서 人工姙娠中絶에 대한 法的 制限은 없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姙娠의 自由와 落胎의 自由"는 女性의 基本權에 속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고 돌아온 것이다.

또한 싱가폴에서 돌아오는 途中에 日本의 保健事業을 視察하는 機會를 가졌던 나는 第2次大戰에서 敗한 日本에서 人工姙娠中絶의 合法化가 日本의 出生率을 격감시키는데 重大한 影響을 미쳤다는 事實에 関心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日本의 優生法과 母子保健法을 參考로 하여 母子保健法을 草案하였는데 그 骨子는 첫째, 姙産婦의 申告의 義務와 姙産婦의 健康管理, 安全分娩對策 및 嬰幼兒 健康管理의 國家的 責任을 明示하고 둘째, 人工姙娠中絶의 広範囲한 許容과 셋째, 避姙法 普及에 必要한 事項으로 構成되었다. 내가 母子保健法案이 적힌 브리핑 차트를 들고 윗분들의 事務室을 드나든 것이 1963年 7月이었다고 記憶된다. 그 때의 保健局長이 尹錫宇先生, 次官이 韓國鎭先生, 그리고 長官이 鄭熙燮先生이었다. 次官室까지는 無事通過하였는데 長官室에 가서 나의 立法熱은 얼어붙고 말았다. 默默히 브리핑을 듣고 나신 鄭長官님은 「아직 時期尚早요」라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는 斷呼한 것이었고 나는 꼼짝 못하였다. 그 當時의 國家의 財政이나 保健事業網의 能力으로 보아 國家의 責任을 立法化해 보았자 死文化가 되는 것이 뻔하고, 人工姙娠中絶의 合法化와 같은 重大事를 非常的 立法機構에서 다루게 하는 것을 避하고 싶으셨으리라고도 미루어 생각해 보았으나 長官께서는 아무 附言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물러나면서 速戰速決의 立法好機를 놓치지 않으려던 나는 虛脫하였다. 그러나 第3共和國에 들어서서 다시 機會는 찾아 왔다. 새 國會, 새 政府는 새로운 姿勢로 國政에 臨하였다. 人口問題에 각별한 關心을 가진 共和党 重鎭인 朴奎祥議員이 國立 人口問題研究所의 設立과 人工姙娠中絶 合法化에 관한對政府 建議案을 國會에서 通過시키데 힘 입어 나

는 母子保健法案을 들고 부지런히 뛰어다닌 結果 1964年 여름경에 母子保健法을 政府案으로 國會에 提出하는데 成功하였다. 國會 保社分科委員會에 曺泳善 專門委員까지 說得이 끝날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發生하였다. 朴奎祥議員이 同一題目에 類似한 內容의 議員立法案을 國會에 提出한 것이다. 保社委員會는 두 法案을 다루게 되었고, 兩法案의 對比表까지 油印物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孫正濟次官으로부터 呼出이 와서 올라가 보니 孫次官 말씀이 『金課長, 어떻게 하나, 朴議員이 政府案을 撤回하라 하는데!』라고 하셨다. 나는 啞然失色하였지만 事態를 理解하고 首肯할 수밖에 딴 道理는 없었다. 與黨 重鎭議員의 意思를 거역할 理가 없는 政府의 立場에서 政府案 撤回는 不可避한 것이었다. 그러나 與黨이 만다면 내(?) 母子保健法은 아니더라도 같은 內容의 立法은 쉽게 될 것이라는 期待속에 敗北感과 虛脫感을 감추면서 孫次官室을 물러났다. 軍政때 鄭長官室에서 立法案을 通過시키지 못하고 물러나올 때의 感懷보다는 孫次官室에서 自進撤回라는 苦杯를 마시고 물러나올 때의 感懷가 더욱 깊었었다고 記憶한다. 國會에서의 議員立法 活動은 나의 醇朴한 予想을 뒤엎고 挫折되고 말았다. 與黨議員 立法이 政府提案 立法보다도 野黨의 더 거센 反應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議員立法의 功이 特定人에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政治風土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與黨內에서도 落胎의 合法化를 共和黨이 앞장 서는 것이 黨에 좋지 않은 印象을 남길 것이라고 憂慮하는 議員도 있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해서 젊은 保健行政家의 立法의 꿈은 다시 霧散되고 말았다. 政府에서 提案하고 政府에서 撤回한 法案을 같은 政府가 다시 立法提案을 國會에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斷念하고 말았다.

歲月이 흘러 1973年에 母子保健法이 制定될 때에 나는 世界銀行 職員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끝내 母子保健法 誕生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고 말았다.

母子保健法은 1972年에 維新으로 國會가 解散된 后 國會의 立法權을 代行하게 된 非常國務會議에서 保社部案을 審議 通過시킴으로써 1973年 2月에 公布된 것이다. 1963年 非常政局下에서 孕胎하고 1973年 또 다른 非常政局下에서 태어나야 하는 기구한 運命을 지닌 母子保健法은 10年이라는 긴 歲月이 걸렸는데도 그리 튼튼하고 잘생긴 아기는 아니었다. 1986年에 改正된 法의 內容도 포함해서 「아직 時期尙早」라는 念慮 때문인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이나 國民의 義務가 強化되고 拡大되어야 할 余地가 상당히 많은 狀態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大器는 晩成인가 보다.

Ⅸ. 國立과 私立의 두 研究機關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人口問題에 남다른 關心을 가진 共和党所屬 朴奎祥議員 등의 提案을 받아드려서 國會가 國立人口問題研究所를 設置하라는 對政府 建議案을 政府에 보내온 것이 1964年 여름이었다. 이에 따라 經濟企劃院은 人口政策審議委員會에서 保社, 內務, 文敎등의 實務者들과 研究所 設置案을 協議하게 되었고 保社部에서는 尹錫宇 保健局長이 參與하게 되었다. 母子保健課長으로서 尹局長을 모시고 있던 나는 이 研究所는 國立으로 保社部 傘下에 設置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主張을 담은 資料를 作成하여 局長에게 드린 記憶이 난다. 그러나 結論은 딴 方向으로 맺어졌다. 公務員 定員을 늘리는 것을 꺼려하고 어느 部處 傘下에 둘 것인가를 가름하기 어렵고, 民間機構 運好委員도 있었기 때문에 予先 社團法人體로 發足시켜 國庫補助로 育成해 나가면서 國立化問題는 次后에 再論한다는 結論이었다. 再論하기로 한다는 꼬리가 붙은 것은 朴奎祥議員에 對한 인사차림이 아니 었던가 생각한다. 日本 厚生省 傘下 國立人口問題研究所와 같은 機關을 우리도 保社部 傘下에 가져야 겠다고 꿈꾸어 오던 나는 失望하였다. 1965年 여름 社團法人으로 發足한 人口問題研究所는 30余名의 研究員 등을 公募하여 活氣있는 研究活動을 시작하였으나, 國庫補助가 2年만에 中斷되자 極甚한 運營難을 겪게되고 많은 研究員들은 다른 職場을 찾아서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初代 所長인 漢陽大學校의 邊時敏先生에 이어 서울大學校 申泰煥先生이 맡으셨다가 聖心中央醫療財團의 尹德善先生에게 運營權이 넘어 가고 及其也는 美州物産의 朴恩台社長이 引受하여 今日에 이르게 되었다. 이 研究所는 "人口問題論集"을 發刊하여 脈絡을 이어 왔지만 近來에는 그 發刊消息도 뜸해졌나 보다. 創立當時부터 깊은 關心을 갖고 그 발자취를 지켜보아온 나는 研究所가 私立으로 한 私企業體 傘下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近來 人口學會에서 이 研究所의 公器化와 活性化를 追求하는 말들이 오가는 것은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保社部 傘下 韓國人口保健研究院과 나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1981年 第5共和國의 産物로서 태어난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은 그때까지 10年의 歷史를 가진 家族計劃研究院과 5年의 歷史를 가진 韓國保健開發研究院과의 統合에 의한것이었고, 家族計劃研究院은 1970年 7月에 發足한 國立家族計劃研究所의 后身인 것이다. 國立家族計劃研究所의 研究陣은 1965年에 保社部 母子保健課內에 設置된 家族計劃 調査評價班의 研究員들이 主體이고 보면, 現在의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은 家族計劃 調査評價班으로 부터 탯줄을 이어 받아왔다고 하는 것에 異議가 없을 것이다. 내가 母子保健課長 時節에 情熱을 발쳐서 育成한 家族計劃 調査評價班의 后身으로 생각하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 대하여 남다른 關心을 갖고 지금도 그 發展을 지켜보고 있다. 그 理由는 母子保健課長, 保健局長, 國立家族計劃 研究所長, 家族計劃研究院 副院長을 거쳐 家族計劃研究院의 마지막 院長과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初代 理事長을 지내는 등 이 研究院의 歷史와 더불어 나의 半生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言及한 人口問題研究所가 國立으로 誕生하지 못하고 私立으로 發足하였기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어 왔다고 한다면 民間機構로 發足시키고저 하는 거센 움직임 속에서 끝내 國立으로 發足하고 國家出損金으로 運營되는 特殊法人體로 残留하게 된데에는 나름대로의 事緣이 있다. 1964年境 大韓家族計劃協會 梁在謨先生과 李宗珍先生은 尹錫宇 保健局長등과 더불어 家族計劃센타 設立方案을 研究하기 시작하고 外援誘致活動을 展開하였다. 이 構想은 100萬弗짜리였고 그것은 分娩室과 入院室등을 갖춘 産院施設과 子宮內裝置와 不姙手術 施設등을 갖춘 直屬 家族計劃크리닉과 寄宿舍를 갖춘 要員訓練施設과 研究室, 展示室, 行政室등을 包含한 巨大한 施設計劃이였던 것이다. 梁在謨先生 등으로 부터 1965年 가을 100萬弗짜리 援助要請을 받은 SIDA(스웨덴 國際開發處) 當局은 好意的인 反應을 보였지만 韓國政府가 正式으로 要請할 것을 期待하였다. 家族計劃協會의 任員이 시작한 援助誘致活動은 保健社會部로 그 主體性이 移転될 수 밖에 없었다. SIDA側에서는 "오덴버그" 博士와 "보렐"教授등이 實務協議에 자주 來往하게 되었고 政府側 實務協議는 主로 내가 맡게 되었다. 協議過程에서 나의 力不足이었는지는 몰라도 産院施設, 家族計劃 크리닉 施設등이 脫落되고 規模는 大幅으로 縮少되었으니 梁在謨先生의 스케일이 너무 컸거나 나의 스케일이 너무 적었었다기 보다는 SIDA側의 스케일이 現實的이었다고 풀이하고 싶다. 結果的으로 醫療서비스에 속하는 機能은 削除하고 必要에 따라 國立醫療院이나 서울市의 醫療施設등을 活用토록 하고 訓練生의 實習도 서울市나 京畿道의 保健所등을 實習保健所로 育成하여 活用토록 한다는 原則에 双方의 實務者는 合議하게 된 것이다. 如何튼 1968年 7月에는 韓國政府와 스웨덴政府間에 家族計劃分野에 있어서의 技術協力에 관한 基本協定이 締結되고 1969年 4月에는 이 基本協定에 基盤을 두고 保健社會部와 SIDA間에 "National Family Planning Center"設立協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協約에 따라 첫째 家族計劃事業 및 関係要員에 대한 基礎 및 補修訓練을 擔當하고 둘째, 政府 家族計劃事業을 向上시키고 人口成長에 관한 影響을 研究하기 위하여 調査評價 活動을 遂行하며 셋째, 外國의 家族計劃事業 指導者에 대한 見學 및 實習訓練을 담당할 目的으로 設立된 國立家族計劃研究所는 1970年 7月에 문을 연 것이다.

現在의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機能은 家族計劃研究院과 韓國保健開發研究院의 機能에다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機能까지 統合한 尨大한

것으로 變했다.

國立으로 發足한 國立家族計劃研究所의 后身이나 私立으로 發足한 人口問題研究所의 現在를 볼 때 많이 變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法的인 性格에 따라 國立이냐, 私立이냐가 規定되지만 運營財源이 國庫에서 主로 나오는가의 與否와 職員의 身分이 公務員인가의 與否에서 差異点을 찾아 볼 수 있는 것 外에는 研究機関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야 할 것이다. 自律性있는 研究活動을 伸縮性있게 支援하고 適切한 身分保障과 應分의 待遇가 同伴할 때에 國立이건 私立이건 그 機関은 合理的으로 運營될 것이기 때문이다. 國立이냐 私立이냐의 黑白論理는 過去로 흘려보내고 보다 合理的인 運營으로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나 人口問題研究所가 國家와 民族의 將來에 寄與하는 훌륭한 機関으로 繼續 發展되어 나가기를 두손 모아 빌 따름이다.

X. 政府事業과 民間團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政府와 民間團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國家家族計劃事業을 推進해온 例는 드물 것이다. 또한 學界의 人士들이 政府나 民間團體의 各種 協議體에 參與함으로써 事業遂行에 대한 學術的 支援을 通하여 兩者間의 協力體制 構築을 공고히 하는 觸媒役割을 담당하였다. 官·民·學의 三位一體的 協同이 韓國家族計劃事業을 成功的으로 發展시켜온 關鍵이었다고 自他가 認定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大韓家族計劃協會는 政府事業 시작에 한 발 앞서 發足한 以來 政策立案을 誘導하였고 國際家族計劃聯盟이나 美國人口協會등으로 부터 技術的, 財政的 援助를 誘導하는 窓口役割을 담당하였으며 各種 醫學的 社會學的 調査研究 活動과 示範事業을 支援하였다. 特히 郡部地域에서의 家族計劃 어머니會 組織등을 통해서 家族計劃 運動을 地域社會 住民의 것으로 昇華시켰으며 果敢한 弘報活動으로 少子女價値觀을 定着시키는 主役을 담당하는등 일일이 列擧할 수 없을 만큼 그 業積은 廣範圍한 領域에서 크고 훌륭한 것이다.

政府는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은 모두 大韓家族計劃協會에 맡겨 왔다. 各級 要員의 訓練, 移動施術班의 運營, 外援資金의 管理, 避姙藥劑器具의 臨床試驗, 弘報事業의 執行등 社會的으로 銳敏한 反應을 謀免하기 위해서 또 政府行政의 硬直性을 피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協會에 맡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事業과 民間事業의 區分을 하기 어려울 만큼 保社部와 家族計劃協會는 密着하고 混然一體가 되어서 일해왔다. 4半世紀가 넘는 긴 歲月을 이와 같은 關係를 維持해 왔다는 것은 他에 그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競爭心과 功名心을 감추고 葛藤과 嫉妬를 克服할 수 있는 人間關係를 維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多幸한 일인지 모르겠다. 政府側에서 事業을 主管해왔던 나로서는 아무리 伸縮性있는 行政을 追求하고 民間活動에 많은 功을 돌리려고 애써왔다 하더라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立場이었기 때문에 本意아닌 誤解와 미움도 받아 왔으리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을 忍耐와 謙讓으로 受容해온 協會側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記憶나는 일은 SIDA(스웨덴國際開發處)의 援助로 國立家族計劃研究所를 建立할 때의 일이다. 나는 保健局長으로 在任하면서 建立委員會 委員長職을 맡으면서 이 研究所를 어디에 建立하고 누구의 傘下에 두고 어떻게 活用하는가 하는 問題로 協會側과 크게 對立한 일이 있었다. SIDA의 援助를 誘致하는데 先導的 役割을 하신 家族計劃協會의 李宗珍先生과 梁在謨先生은 訓練施設을 主軸으로 하는 同施設은 政府로 부터 家族計劃要員등의 訓練事業을 委任받고 있는 協會가 管理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머지 않아 正規公務員이 될 家族計劃要員의 訓練과 國家家族計劃事業에 관한 調査研究는 保社部의 一次的 責任이니 이러한 일들을 맡을 이 機關은 國立이어야 하고 保社部 傘下에 두어야 한다는 나의 見解와 맞섰던 것이다. 일찍부터 國立人口問題研究所를 保社部 傘下에 갖고 싶었던 나는 비록 名稱은 國立家族計劃研究所가 되더라도 人口問題研究機能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속셈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保健局長室에서 열린 建立委員會에 委員으로 參席했던 梁在謨先生이 同委員會가 國立保健院 敷地內에 同機關을 建立하기로 決定짓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걸어나가신 일이 지금도 생생히 記憶난다. 또 建物이 完成된 後 協會는 많은 空間割愛를 要求하고 나섰다. 所長室 옆에 協會 理事長室까지 마련되고 協會全體가 入住할 氣勢였다. 事務室이 없어 軍用 콘셀建物과 貰房살이를 하고 있던 協會의 形便이었지만 協會는 民間團體로서의 本然의 機能을 갖기 위해서도 自體의 廳舍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露骨的인 拒否反應을 이르켰다. 얼마 後에 協會는 永登浦에 自體의 建物을 確保함으로써 집없는 서러움을 免하게 되었지만 새로 發足한 國立家族計劃研究所內에서 同居할 때의 나의 態度에 協會側은 大端한 不滿을 가졌었고 그러기에 나는 많은 미움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뭏든 政府事業에 너무 密着해서 政府事業의 많은 部分을 委任받아 執行하여 옴으로써 協會는 全國的인 組職과 많은 有給職員을 갖는 巨大한 機關으로 發展되어 있지만 이제 4半世紀가 지난 오늘날 人口增加率도 1 %에 到達하고 國家家族計劃事業의 樣相도 크게 바뀌어질 時點에서 保健社會部와 協會의 긴 密月旅行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큰 關心事가 되었다. 大韓家族計劃協會도 어떻게 體質改善을 하여 民間團體 本然의 位置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큰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課題도 亦是 保社部와 더불어 풀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XI. 國際機構에서의 公務員活躍

日帝時代 警察行政의 一環으로 있었던 우리나라의 保健行政으로 부터 中央에는 保健厚生部와 道에는 保健厚生局을 두는 先進美國型의 公衆保健行政體系로 發展시킨 美軍政廳은 保健人力 養成에도 功이 컸다. 軍政廳에 의하여 美國留學을 다녀오신 醫師先輩들이 우리나라에서 公衆保健行政과 保健醫療事業을 現代化하는 先驅者가 되었다. 그 後 USAID나 WHO 등의 技術援助計劃의 一環으로 많은 先輩同僚들이 海外留學을 마치고 公共保健醫療의 各 分野에서 活躍을 하였으며,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保健人力이 海外에 進出하여 WHO 등의 國際機構 公務員으로도 活躍하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保健分野에 많은 國際機構 公務員을 받아드리기도 하였다. 特定分野의 우리나라 保健人力 水準이 落后해서 뿐만이 아니라 UNICEF등의 海外援助를 誘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認定하는 國際機構專門家의 技術的 承認節次를 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資金이나 物資를 얻어다 쓰기 위해서 때로는 부득이 WHO 등에서 專門家를 招聘하여 顧問으로 모셔야 했던 것이다. 그들의 技術的 助言 내지 忠告는 그 內容에 있어서 우리 國內 專門家의 技術的 判斷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甘受해야 했었다. 援助를 받는 側에서 갖기 쉬운 劣等意識도 겹쳐서 비위에 거슬리는 때도 많았던 것으로 記憶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專門家도 國際機構에 進出이 많아지고 特히 保健社會部의 先輩 保健公務員들이 WHO 등에서 活躍하게 되면서 나의 偏狹했던 생각들은 보다 너그러워지고 또한 나 自身이 世界銀行에서 일하게 된 후 부터는 國際機構 公務員의 存在價値를 再評價하게 되었다. 世界銀行같이 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빌려주는데도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專門技術職員의 役割은 거의 必須的인 것이었다. 技術鑑定이라는 節次 등을 통해서 先進技術을 后進國에 移転하는 것도 世界銀行이 一般銀行과 다르다고 自處하는 点이기도 하다.

世界銀行은 1960年代 后半에 人口事業을 위한 借款事業을 開發하기 시작하였는데 世界銀行總裁인 "맥나마라"氏의 人口問題와 經濟開發에 관한 卓越한 識見이 作用했던 것이다.

나는 1968年과 1969年 2回에 걸쳐서 世界銀行으로 부터 약 2個月씩의 短期諮問官 서어비스에 대한 電文招請을 받았었으나, 保健局長으로 在任中인 내가 長官님의 承諾을 받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應하지는 못하였다. 첫번째는 "트리니다 앤드 토배고"에 두번째는 "자매이카"에 人口事業 借款을 위해 出張가는 일이었다. 1970年初에는 書面招請이 왔는데 언제든지 편리한 時期에 3個月 내지 6個月間 世界銀行 本部에 와달

라는 內容이었다. 나는 이때 保社部 本部를 떠나서 國立家族計劃研究所長으로 가 있는 때라 原則的으로 이를 受諾하고 때를 기다리던 次에 1971年 7月 國立家族計劃研究所는 特殊法人體인 家族計劃研究院으로 改編되고 나는 副院長으로 물러앉게 되었다. 國立醫療院長職에서 家族計劃研究院長으로 나오신 車潤根先生은 내가 保健局長으로 모시던 분이라 내가 副院長으로 물러 앉은 것에 큰 不便은 없었지만 큰 役割을 할 處地도 아니었다. 나는 새로 赴任한지 얼마 안 되는 李炯鎬 保社部長官에게 世界銀行 招請에 應할 수 있도록 承認해 주실 것을 要請하였다. 그러나 李長官의 말씀은 「副院長이 6個月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必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였다. 그 말씀은 가지 말거나 가려면 그만두고 가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드렸다. 나는 곧 辭職願을 내놓고 世界銀行에는 赴任하겠다는 電文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個月間의 短期諮問官職을 위해서 固定職을 내던지고 만 것이며, 이것이 動機가되어 그 后 7年餘의 國際機構 公務員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數年間씩 자리를 바워두는 등 復職의 制度上 保障으로 自國人이 國際機構에 나아가서 일하는 것을 支援하는 나라도 있던 時節에 우리나라, 特히 保社部 周邊은 그렇지 못하였다. 海外에 나가는 것을 웬일인지 달갑게 여기지 않고 아예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規定지어 버리는 風土에서 우리의 先輩들이 이곳 저곳을 轉轉하면서 海外雇傭살이를 延長하시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國家的으로도 國際交流를 振興하려는 조짐이 있고 前職 國際機構 公務員들이 속속 歸國하여 各界에서 活躍하는 例가 많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保健公務員을 辭任하고 WHO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局長으로 復歸한 李晟兩先生이 그 成功的 例의 하나이고 保社部 李東模課長의 WHO本部 派遣勤務도 좋은 例가 된다고 생각한다. 方淑, 白永漢, 尹錫宇先生들이 돌아오셔서 學界 등에서 活躍中이고 朴享鍾先生도 곧 돌아오시게 되었다한다. 이제는 나가고 돌아오는 일이 수월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最近에 WHO 西太平洋地域 事務局長 候補로 登場하고 있는 韓相泰博士(同地域 事務局次長)가 會員國에 의해서 選任되도록 後援하는 모임이 國內에 생기고 活動基金까지 모으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나라도 國際機構進出을 個人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알고 이를 歡迎하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韓相泰博士는 나와는 醫科大學 入學同期이고 保社部에서는 나의 先任 公務員으로서 나에게 保健局長 자리를 물려준 분이기도 하다. 21年이란 긴 歲月을 WHO職員으로 奉職한 그분이 꼭 地域事務局長으로 選任되어 韓國人의 意氣를 世界舞台에 떨칠 수 있는 또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빈다.

나는 1971年 가을 世界銀行으로 떠난 後 短期勤務契約期間을 거쳐서 1973年 부터는 正規 永久職으로 勤務하였다. 내가 所屬되어 있던 部署는 人口事業局으로 始作하여 人口, 營養, 保健事業局으로 그 機能을 擴大시켜 나갔다. 銀行의 主役인 經濟專門家를 中心으로 保健, 建築, 弘報 등의 專門家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며 專門家들은 世界 여러 會員國에서 任用되기 때문에 워싱톤에 있는 世界銀行은 마치 人種展覽會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내가 參與한 事業國은 主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케냐, 콜롬비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시리아, 태국 등 이었다. 地球를 여러 바퀴 돌면서 많은 異國風物에 接하고 여러나라 사람들과 協同作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투른 英語를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國內에서 얻은 保健行政과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經驗이 나의 밑천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었다. "스패니쉬—잉글리쉬" 辭典을 뒤져가며 콜롬비아 營養事業計劃에 관해 내가 作成한 英文報告書가 다시 스페인語로 번역이 되어 世界銀行文書로써 콜롬비아政府에 보내졌는데 이것이 콜롬비아政府로 부터 好評을 받았다는 消息을 들었을 때는 기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나라 일만 하게되니 내 나라에서 일할 때의 喜悅과 보람은 느껴보기 힘든 것이 國際機構公務員의 生活이라고 말할 수 있다. 他鄕살이 數年이 지난 어느 날 保社部에서 家族計劃 研究院長으로 돌아오라는 勸誘가 왔다. 나의 아이들도 그럭 저럭 美國教育에 適應하고 있는 터이

기도 하여 辭讓하였다. 그런데 2年인가 지난 後에 다시 같은 內容의 勸誘를 받았다. 많은 망설임 끝에 나는 歸國하기로 決心하였다. 두 아들을 韓國에 보내서 大學敎育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政府施策이 나왔고 더 늙기 前에 故國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가 쉽게 다시 오리라고 期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保社部의 부름의 背後에는 나의 옛 同僚後輩들의 熱誠的인 聲援과 故 朴承咸 保社部次官의 積極的인 推薦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그들의 熱과 誠을 고맙게 받아 들이는 것이 順理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들에게 感謝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XII. 나의 새 出發

7年餘의 海外生活을 淸算하고 다시 家族計劃硏究院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퍽 多幸한 일이었다. 옛 親舊들과 하던 일을 다시 하게되니 곧 適應이 되고 熱誠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第5共和國에서 일으킨 硏究機關統廢合 바람에 家族計劃硏究院은 韓國保健開發硏究院과 統合하게 되어서 家族計劃硏究院 開院 10週年 記念行事를 마지막으로 保社部傘下를 떠났다. 그것은 1981年 7月이었으며 歸國後 3年半만에 失職이란 生後 처음 맞는 쓰라린 經驗을 하게 된 것이다. 國際機構公務員으로서 停年退職까지 12年 以上의 勤務年限이 남아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돌아온 것이 한때는 後悔스럽기도 하였고 政府의 人事가 怨望스럽기도 하였다. 내 스스로의 社會性이나 政治性의 限界를 自認하면서 自己反省과 第2의 人生을 準備하는 機會로 삼고자 했다. 몇달이 지난 어느 날 韓達鮮先生(當時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敎授)에 의하여 聖心醫療財團의 尹德善理事長에게 紹介되었고 바로 財團本部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새 出發을 한 것이다. 곧 이어서 나는 尹德善理事長이 設立한 翰林大學의 初代學長이란 大任을 맡게 되었고 4年의 任期를 마친 後로는 現在까지 同大學에서 敎授로 남아 있게 되었다.

2男2女를 다 結婚시키고 老母와 아내와 셋이 서울 近郊의 田園住宅에서 아담한 庭園을 가꾸는 余裕를 갖게된 요즈음 서로 기리고 서로 아끼는 親舊들과 자주 모여서 保健을 論하고 人口를 論하며 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